

입낙찰제도 개선의 과제

입낙찰 선진화 - 업계 현실과 균형 발전 고려해야

- 중소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충을, 현실기반의 단계적 제도 개선 바람직 -

최근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확정됐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건설산업의수준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자는것이다. 이를위해건설규제완화로산업의생산성을높이고발주제도의개선으로공공사업의효율성을향상시키며설계·엔지니어링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앞으로건설산업전체적으로 많은 제도들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발주제도개선은공공건설사업의효율성 향상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것이다.

제시된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발주방식을다양화하고턴키및대안입찰제도를개선하며입·낙찰심사기준의변별력을강

화하고공사관리내실화및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논리적으로틀린부분이없고옳은방향이다. 그렇지만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이있기 때문이다.

형평성과 균형 발전 고려해야

첫째, 건설산업내각계층의형평성과균형발전을고려하면서건설산업의선진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30여 년 동안 세계를지배해왔던신자유주의와국제적개방화, 그리고세계시장의통합은경쟁력을갖춘 1등만이 살아남고 이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경쟁력

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왔고양극화현상을초래하는요인이되었다. 오늘날세계경제위기의근본적인원인은신자유주의가 초래한부작용이라는주장이설득력있게들리고있다. 건설산업선진화를추진함에있어서도이러한지적을깊이 생각해볼필요가있다.

건설시장의 통합과 기술 경쟁의 촉진은 건설산업의발전을위해분명필요한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방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건설산업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가앞서나가는건설업체들만의기술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국한·집중해서는 안 된다. 건설산업 전체의 기술과 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선진화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의미의건설산업선진화를이루어내는것

이기때문이다.

기술 경쟁 촉진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시반드시함께고려해야하는것이건설산업의균형발전이다. 시장원리에기반한기술 발전과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두 축이 함께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중소 건설업이 경쟁력을 함께 갖추어나가도록 해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이것은 건설 산업 전체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으로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각계층에 맞는 공사 발주 방식의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를 보면 지역제한 · 지역의 무공통도급 · 지역 공동도급 가점 · 등급제한 제도 등 중소기업계를 배려하는 제도들을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수주 물량 지원 효과 못지 않게 업체 난립 등의 부작용으로 중소기업계를 어렵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실 있는 기술 경쟁을 하도록 어떻게 보완하여 부작용을 해소하느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계적 추진 바람직

둘째,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은 현실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입찰제도의 현재 좌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건설전문가들은 공공공

사의 발주 방식이 획일화되고 입찰제도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적하는데만 집중할 뿐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공공공사의 발주 방식이 획일화되고 입찰제도의 변별력이 부족하게 된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시장원리에 충실하지 못하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입찰제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가치는 발주자에게 경제적인 가격과 원하는 품질의 확보를, 산업 측면에서는 건설기술의 발전을, 공급자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이익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완벽히 달성할 수 있는 입찰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에 글로벌 스탠더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나이다. 입찰제도와 관련되는 사회적 환경이란 발주기관의 기술 수준과 심사 능력, 국민간의 신뢰도 · 사회적 투명성,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일 것이다. 국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택할 수 없다. 제도를 도입할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든 사회적 환경에 가장 걸맞는 입찰제도를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입찰제도를 보면 입찰 참가자들의 많은 사전 기술적 검토와 노력에 의한 입찰, 그리고 발주기관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량적 입찰제도가 근간을 이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입찰 참가자들의 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입찰 방식을 택했고 발주기관은 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를 정형화하며 점수를 정량화 · 계량화한 계산 방식의 입찰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입찰제도가 추구할 목표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미흡한지 알지만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수학계산 방식의 객관적 입찰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입찰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해 주관적 평가 방식의 재량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의 입 · 낙찰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의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한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에 제시된 입 · 낙찰 심사 기준의 변별력 강화, 순수 내역 입찰 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 제도가 심의 개선, 턴키 · 대안 입찰 제도의 개선 등과 제들은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이상적 과제와 현실의 조화

현 단계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입찰제도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이상적인 제도일 뿐 우리 건설산업의 실체 모습의 상태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선과 정착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 만큼 앞으로 건설 관련 주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백영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kbaek@cerik.re.kr